

제노사이드 연구

Korean Journal of Genocide Studies

제5호

발행인

정근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편집위원장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편집위원

김학재(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김일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최호근(고려대 연구교수)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사학과 강사)

제노사이드 연구

Korean Journal of Genocide Studies

제5호 || 2009.2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발행 2009년 2월 28일

지은이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펴낸이 윤관택

펴낸곳 선인

등록 제5-77호(1998.11.4)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1 꽃마루 B/D 1층

전화 02)718-6252 / 6257


팩스 02)718-6253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12,000원

ISSN 1975-9401

선인



차례

【권두시론】

7 정근식_ 우리는 진실과 화해를 향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특집】 극복되지 않은 과거, 전쟁과 수용소

13 전갑생_ 한국전쟁기 오후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재일조선인
강제추방에 관한 연구

45 김학재_ 진압(鎭壓)과 석방(釋放)의 정치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101 도리아마 아쓰시(鳥山淳)_ 오키나와(沖縄)전에서의 민간인수용소

129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_ '개조'와 '인죄(認罪)'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범관리소'의 기원과 전개—

167 Jörn Rüsen_ 어떻게 부담스러운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독일의 사례—

【서평】

189 임재성_ 삶을 담는 연구의 방법론

—허버트 허시, 강성현 옮김,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2009, 책세상—

【휘보】

205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주요 활동

206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회칙

211 〈제노사이드 연구〉 원고 제출 및 작성요령

215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논문 심사규정

218 〈제노사이드 연구〉 연구윤리 규정

221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임원 명단(제3기)

【특집】 극복되지 않은 과거, 전쟁과 수용소

어떻게 부담스러운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 독일의 사례 —

Jörn Rüsen*

1. 도전

역사(history)란 한 인간, 사회집단, 국민, 민족, 전체 문화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논의하는 매체이다. 정체성(identity)은 인간의 주관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연관(self-relationship)으로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종합한다. 정체성은 인간들이 자신의 독특성과 타자와의 차이를 표현하는 일시적 얼굴(temporal face)이다. 생동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산출하려면 과거를 재현할 때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험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정체성은 언제나 강력한 자기 확신의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제시해주는 역사는 항상 수많은 자기 이미지의 긍정적 측면들 속에서 구성된다. 이 초보적 형태의 정체성은 아래에 인용된 연재만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Kulturwissenschaftliches Institut

〈그림 1〉 연재만화



- "월요일 아침에 일한다고 터박터박 걸어가는 저 불쌍한 일간이들 좀 봐."
- "하하하. 이 불쌍한 일간이들아. 너희들은 일하러가야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고양이니까.'"
- "만약에 내가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이처럼 좋아하지 않았겠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인간의 삶을 교란하고, 정신적 질병, 고통, 자기 파괴의 원천이 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들은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도전(challenge)이 된다.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역사문화 안에서 긍정적 자기 연관에 대한 필요와 충돌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과 씨름해야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생활을 전망할 때 자신의 과거를 대범하게 참조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역사적 감각을 갖춘 세대의 정신적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2. 가능한 답변들

과거 속에는 부정적 요소들과 대면해야 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담겨있다. 이 가능성은 과거에 대한 완전히 상이한 두 개의 접근방법으로 범주화될 수(rejecting) 있다. 첫째 방법은 부정적 과거에 대한 거부이다. 이것은 곧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사문화 속에

부정적 과거가 자리 잡을 여지를 아예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부정적 과거의 수용(accepting)이다. 이것은 곧 자신의 역사적 이미지 속에 부정적 과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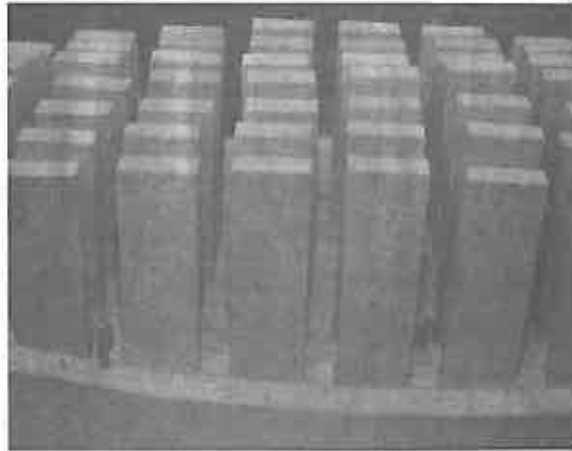
첫째 경우를 살펴보자. 거부는 억압(suppression), 은폐(concealment), 치외법권화(exterritorialization), 상대화(relativization), 역사적 의미의 변화(chang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상대화는 동일한 역사 안에서 긍정적 과거사를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사건들의 역사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치외법권화란 도전적인 역사적 사건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역사 영역에 할당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역사 바깥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적인 역사의 의미란 과거의 부담스러운 부정적 성격이 사라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긍정적 사건으로 전화시키는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과거사를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가 희생자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경우를 보자. 부담스러운 과거는 도덕적 정죄를 통해 수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정죄를 지배하는 가치들이 자기 이미지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부정적 사건들을 자기 자신의 역사에 통합함으로써, 자기 역사에 양가적 성격(ambivalence)과 이질적 성격(heterogeneity)을 띤 요소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정교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3. 독일의 사례

내가 아는 한, 독일 국민은 자신들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물을 세운 유일한 국민이다. 1999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살해된 유럽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물(monument for the murdered Jews in Europe)"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이 기념물은 2005년 5월에 완공되었다.

〈그림 2〉 페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가 설계한 최초의 베를린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



〈그림 3〉 그 후에 페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베를린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¹⁾



Peter Eisenman, revised design, Memorial for the Murdered Jews of Europe, 1998.

1) James E. Young,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213

〈그림 4〉 베를린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 세부 모습²⁾



이 기념물의 조성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구 역사문화의 역사에서 보면 유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들이 처한 특수 상황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독특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이 기념물이 하나의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념물이 가리키는 것은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홀로코스트 기억만이 아니다. 이 기념물은 역사적 기억 논리의 일반적 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이 기념물은 서구 국가들만이 아니라 비서구 국가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독일 사례에 흥미를 갖고 논의할 가치가 있도록 만든 하나의 전환적 사건이다.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역사문화의 발전 사례는 “부담스러운 과거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2)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 Nr. 159(2004.7.12), p.29

앞에서 언급한 상이한 정신적 전략들이 독일의 사례에서 관찰될 수 있다. 나는 이념형들을 구성하고 이 이념형들을 전후(戰後) 독일 역사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세대와 연결지어, 이 상이한 전략들에 시간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이하의 논증에서는 주로 서독의 사례에 국한하여 언급할 것이다).

첫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나치 치하에서 살았고, 전후에는 파괴된 나라를 재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다. 이 세대가 나치 범죄들에 관한 기억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였다. 증거 자체가 너무 강력했고, 독일을 점령한 승전국들도 재교육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독일인들을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만행과 대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치 과거에 대해 이 세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보인 반응은 은폐였다.

새로운 민주주의적 독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던 저명한 대표적 인물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치 체제를 장악했던 엘리트에 관해 언급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엘리트들이 나치체제에 연루되었던 점은(전쟁 직후 몇 년 동안 독일 국민들을 탈나치화 시키기 위한 미약한 시도들을 제외하면) 전후 독일에서 실제로 생점이 되지 않았다. 몇몇 경우에는 전쟁 동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인들이 겪었던 고통이 독일인들을 희생자로 묘사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나치 범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나치 범죄에 대한 독일인의 책임이 치외법권화 되었다는 점이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독일인들은 나치 지도부와 분리되었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독일인들은 이 이질적 분자들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연합군 폭격에 의한 대량 파괴와 동유럽 지역에서 대량으로 추방된 수백 만 명이 겪은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하는 데 정신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냉전의 정신적 구조는 독일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나치 범죄와 역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도와주었다. 전체주의 이론의 틀 속에서 독일인들은 다시 지적인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 범죄들을 공산주의 영역에 전가함으로써 치외법권화 할 수 있었다. 동독은 나치즘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돌리고, 그리하여 독일의 최근 과거사에 담겨있는 모든 죄과를 서독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공식적인 반파시즘 이데올로기는 동독인들을 순결한 존재로 만들었다.

은폐의 장막 아래서 책임의 중압감은 다음 세대로 전승되었다. 실로 이 세대는 자기 책임을 수용하고 은폐의 역사문화를 독일의 최근 과거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태도로 변화시켰다. 도덕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은 자기 확신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독일인들은 보편주의적인 도덕성의 원리들에 관해 언급하고, 이 원리들을 서독의 역사문화는 물론 정치문화의 토대에까지 각인시켰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과 독일의 과거 사이에 현저한 거리를 두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현저한 거리감과 더불어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을 통해 규정되었다.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은 나치 과거와 나치 체제 하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더불어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역사적 책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주는 상징이다. 그렇지만 이 세대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그들의 계보적 연결 관계를 어떻게 중재하고, 그들의 존재를 독일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세대는 과거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세 번째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였다. 이 해답이야말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역사문화를 특징짓는다. 이러한 특징은 역사화(historization)라는 범주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역사화가 역사적 기억의 영역에서 독일인들의 문화적 지향에 부담스러운 과거가 가했던 위협적 도전의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정 반대로 나치 범죄에 대한 기억의 힘은 그 범죄가 발생했던 시점과 멀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오늘날 독일 국민은 나치의

야만적 행위는 물론 통일 이후인 지금에 와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반인도성까지 포함하는 역사의 산물이므로, 독일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거리를 두어왔던 과거사를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 속에 재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문화와 정치문화의 토대에 각인되어 온 도덕적 표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부담스러운 과거를 문화적 지향의 역사적 틀 속에 다시 통합하는 이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끝은 아직도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로운 독일의 역사문화에 담겨있는 몇 가지 특징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그 주요한 특징은 독일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사적 특성들 속에 담겨있는 이질성과 양가성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두운 부분들, 즉 비인간성의 그림자는 매우 복합적인 역사적 자기이해 속에 통합되고 있다.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이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좀 더 오래된 여타 독일사의 기념물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새로운 양가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양가성에 대한 이 새로운 보증 속에는 독일의 역사문화가 이제 명백한 도덕적 판단을 선호하는 가운데 배제했던 역사적 경험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독일인들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쟁 기간과 그 후에 그들 자신이 겪었던 희생과 고난을 논의의 주제로 삼을 수 있었다. 연합군의 공습과 (동유럽 지역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의) 대량 추방이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정죄된 최근의 과거사에 어울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일부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명확한 책임의 선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4. 독일 사례의 중요성

이제껏 다른 독일의 사례가 다른 나라들의 역사문화 발전에 패러다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몇 개의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집단기억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란 자신의 역사적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 속에 담겨있는 좀 더 복잡한 특성에 주목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주로 독일인들)의 부정적 과거와 대비시키면서 자기 국민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명백하게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를 포기함을 뜻한다. 이 점에서 보자면, 예컨대 독일 침략자들에 대한 부역행위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나치 지배의 비인도성과 야만성에 대한 책임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역사적 경험에 귀속되고 있다. 유럽 차원의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체계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 주변 국가들이 홀로코스트 기간에 극에 달했던 비인간적 이데올로기와 활동에 관여했던 사실을 통찰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이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자기 민족의 결백성은 점차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질성과 양가성이야말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민족들의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역사적 기억들을 아우르고 종합하는 유럽 역사문화가 출현하는 데 있어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와 가해자의 구분 자체가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가해자가 동시에 희생자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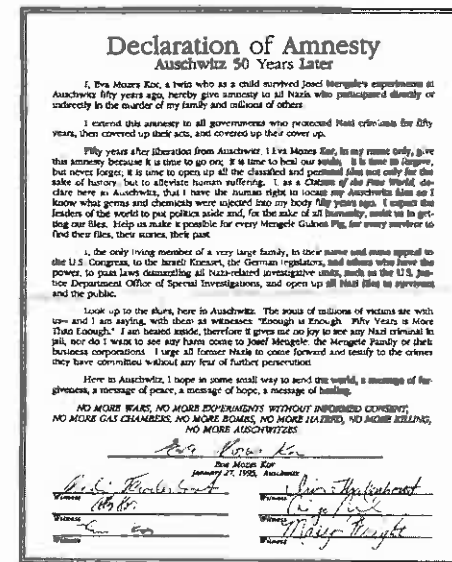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역사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또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양가성은 선악 간의 명확한 구분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언제나 타자의 타자성과 대비되

는 자기 이미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역사적 규정의 선을 그을 때 일어난다. (역사적 기억의 세계를 수혜자-방관자의 세계나 가해자-희생자의 세계로 양분하는, 널리 퍼져있는 도덕주의적 태도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더불어 긍정적인 자신과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타자의 타자성 사이에서 균형 없이 가치를 배분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과정에 자기 역사의 그림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으로써 선악 간의 명백한 상호배제를 넘어 타자의 타자성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양가성은 자기 역사적 정체성의 특수성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인간의 규범적 수준에서 타자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러 민족, 국민, 문화에 대한 자민족중심주의적 구분은 인간다움의 가치와 모든 인간 속에 담겨있는 잠재적 성격의 비인간성을 공유함으로써 극복되고 있다.

이 근원적 휴머니즘(basic humanism)이 역사문화의 토대 속에서 성취된다면, 기념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거의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지속적 강압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가 용서(forgiving)의 단계이다. 용서는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신적 활동 속에 휴머니즘의 새로운 힘을 도입한다.

이처럼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역사적 기억의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들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사례만 언급하도록 하자. 첫째 사례는 아우슈비츠 해방 50주년을 맞아 에바 코어(Eva Kor)가 했던 주목할 만한 연사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용서에 관한 자신의 테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나 에바 모세스 코어(Eva Moses Kor)는 오직 나의 이름으로 이 사면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야 할 시간이며, 용서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³⁾

3) M3) <http://users.abcs.com/candles/amnesty.htm>



이 용서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였다. “나의 어깨에서 고통의 짐이 치워졌다. 나는 더 이상 아우슈비츠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다.”⁴⁾

내가 말하는 두 번째 사례는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the truth-and-reconciliation-commission)이다. 흑인 여성작가인 풀라 그보도--마디지켈라(Pumla Gbodo-Madizikela)는 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담아 한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⁵⁾ 이 책은 역사문화의 한 요소로서 용서가 갖고 있는 이념과 실천적 의미를 보여주는 용변적 사례이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의 경우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

4) <http://www.departments.bucknell.edu/pr/releases/Archives%202002/fall%20semester/kor%20talk%2010-28-02.htm>

5) Gobodo-Madizikela, 2003, Pumla: A human being died that night. A story of forgiveness. Clarmont: David Phillip Publishers

한 명과 한국의 전직 대통령 김대중과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1997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김대중이 강연을 마친 후에 마련된 질문과 답변 시간에 이루어졌다. 김대중은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희생자는 용서할 수 있다."⁶⁾

이 마지막 사례를 들면서 나는 결론을 맺고 싶다. 은폐에서 도덕화로, 도덕화에서 역사화로 나아가는 단계는 역사문화 속에서 이렇게 인간다움이 자라가는 방향으로 추구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수준의 과거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애도의 정신적 과정에까지 깊어지고 가야 한다.⁷⁾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상실된 인간성이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만행의 사슬은 늘 되풀이되는 강력한 힘을 통해 과거를 현재와 결속시킨다. 이 사슬은 부담스러운 과거와 대면할 때에 비로소 끊을 수 있다. 우리를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용서이다.

[최호근 옮김]

6) S.-J. Han(ed.), *Looking out from the East towards the World: Kim Dae Jung's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bate on Human Rights*(Seoul 1998), pp.54-58. 이 글은 다음 책에 재수록되었다. Mamadou Diawara, Bernard Latégan, HJörn Rüsen(eds.), *Memory in Africa*. Forthcoming New York: Berghahn Books 2009

7) Jörn Rüsen, "Trauma und Mourning in Historical Thinking",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istory and Archeology*, Vol. 1, No.1(Summer 2004), pp.10-12를 참조하라.

How to come to terms with a burdening past

—The German example—

Jörn Rüsen

1. The challenge

History is a medium, within which a person, a social group, a people, a nation and a whole culture formulate and discuss their identity. Identity is a self-relationship in human subjectivity, which synthesizes the experience of the past and the expectation of the future. It is the temporal face, by which humans express peculiarity and their difference from others. In order to bring about liveable historical identity the presentation of the past must include experiences the people can identify with. Identity always asks for strong elements of self-affirmation. Therefore history which presents an image of one's own self has always self in store positive features of this.

This elementary shape of identity is clearly expressed in the following quotation of a comic strip:

A negative self-image disturbs human life and is a source for mental illness, suffering and self-destruction.

Negative historical experiences, however, are a challenge for historical identity formation. Their negative assessment strictly runs against the

need for a positive self relationship in historical culture. Therefore those who had to struggle with this contradiction have developed mental strategies of historical sense generation enabling them to inspire their future life perspectives with an encouraging reference to their past.

2. Possible answers

There are quite a lot of possibilities of fulfilling this need to come to terms with negative elements in the past.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ast: (a) rejecting it, i.e. not giving it a place in the historical culture of one's own identity or (b) accepting it, i.e. giving it a place in the historical image of oneself.

(a) Rejection can be brought about by suppression, concealment, exterritorialization, relativization and by chang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Relativization means to weake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egative events by emphasizing positive ones within the same history. Exterritorialization means to place the challenging historical event outside the realm of one's own history by assigning it to the realm of somebody else's history. Changing historical significance means to interpret the burdening past in such a way that its burdening negative character has vanished or is turned into a positive one, so that the perpetrator can appear as a victim.

(b) The burdening past can be accepted by moral condemnation. Here the values ruling this condemnation are placed into the centre of one's self image. Another possibility - I think it is the most elaborated one - is to integrate the negative events into one's own history thus giving it elements of ambivalence and heterogeneity.

3. The German case

The German nation is - as far as I know - the only one which has erected a monument for its victims. In 1999, the German Parliament, the Bundestag, decided to build a "monument for the murdered Jews in Europe", and in May 2005 it was opened.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first design by Peter Eisenman and Richard Serra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later design by Peter Eisenman⁸⁾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detail⁹⁾

This is a unique event in the history of historical culture in the West, if not worldwide. Has this any relevance beyond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Germa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 think that this specific, if not unique case has a general relevance. It does not only indicate a future-directed Holocaust memory of the Germans, but it addresses a general turn of the logic of historical memory. It is a turn which makes the German case interesting and worthwhile to be discussed, not only for the West, but for non-western countries as well. For all places and contexts wherever the question is raised how to come to terms with a burdening past,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ulture in Germany might be interesting.

In Germany, the different mental strategies mentioned above can be observed. I would like to bring them into a temporal order by constructing ideal types and by ascribing these ideal types to the three

8) Young, James E.: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P) 2000, p.213

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Nr. 159, 12. Juli 2004, p.29

different generations of post-war German history. (For the following argumentation I mainly refer to the West German case.)

The first generation consisted of people, who lived in the Nazi time and had to build up the destroyed country after the war. Suppressing the memory of the Nazi crimes was rather impossible. The evidence was too strong, and the victors who occupied Germany confronted the Germans with their atrocities in the context of a re-education programme. The publicly dominant reaction to the Nazi past was concealment.

In order to build up a new democratic German state, there was no alternative but to refer to the elite of the Nazi system except for its prominent representatives who had fled, been executed or were in prison. The involvement of this elite in the Nazi-system was not really an issue in post-war Germany (except for the weak attempts of de-Nazifying the German people in the first years directly after the war). In some cases the suffering of the Germans during and after the war was used to attribute victimhood to the Germans thus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Nazi crimes. Moreover this responsibility was exterritorialized: the Nazi leadership was separated from the normal and ordinary German people who were seduced by these aliens. The Germans concentrated their mental efforts on surviving the hardships of massive destruction by the Allied bombing and of mass expulsion of millions of Germans from the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The mental structure of the Cold War helped the Germans to hide their historical involvement in the Nazi-crimes. In the framework of a theory of totalitarianism they could again - in an intellectually rather attractive way - exterritorialize these crimes into the realm of communism. The East German state did the same by attributing Nazism to capitalism, thus transferring the whole blame of the recent German past to West Germany. The official ideology of anti-fascism rendered the East-Germans innocent.

Under the veil of concealment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was transferred to the next generation. Indeed, this generation accepted its responsibility and changed the historical culture of concealment into a highly moralizing attitude towards the recent German past. By moralization self-affirmation was gained. Doing so the young Germans referred to the principles of a universalistic morality, and they inscribed these principles into the fundamentals of the historical and, of course, the political culture of West Germany. At the same time they pushed the German past into a fundamental distance from themselves defining their historical identity by this distance and by an identification with the victims.

The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is a speaking symbol for this taking over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Nazi past and it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r identifying with the victims.

However, there remained the unsolved problem of this generation. It was the question of how to mediate their genealogical connection, their being a part of German history, which critically kept the past in distance.

The third generation had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answer has characterized the historical culture of Germany ever since the late 80s up to our days. It can be addressed by the category of historization.

Historization does not mean that the burdening past is losing its threatening challenge to the cultural orientation of the Germans in the realm of historical memory. On the contrary: the power of the memory of the Nazi-crimes has increased with the temporal distance to its occurrence. The German nation of today is an outcome of the history which includes the Nazi barbarism and - now after unification also the inhumanity of the communist system - the Germans are now trying to re-integrate the past hitherto kept in distance from their identity into it. By doing so they have not given up the moral standards which have

been inscribed into the fundamentals of their historical and political culture.

This process of re-integrating the burdening past into the historical frame of cultural orientation is still going on, and the end of it is still open. Nevertheless, some features of this new German historical culture have already become visible.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a growing heterogeneity and ambivalence of the historical features which define German identity. The dark parts, the shadow of inhumanity are being integrated into a highly complex historical self-understanding. The spatial proximity of the Holocaust memorial to the monuments of other and older German history in the centre of Berlin signifies this new ambivalence.

It is in this new pledge for ambivalence that the German historical culture now can integrate historical experiences which had been excluded in favour of a clear moral judgement. Since the late 80s the Germans felt able to say "we" meaning the perpetrators and they could thematize their own victimization and their suffering in and after the war at the same time. The Allied bombing and the mass expulsion, which did not fit into the morally condemned recent past have now become a part of it. This took place, of course, without blurring the clear lines of responsibility.

4. The significance of the German case

Has the described German case any paradigmatic significance for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ulture in other countries? There is some evidence for a positive answer to this question. We can observe, for instance, that in other European countries similar changes of the structure of collective memory have taken place. Clear distinctions between the positive view on one's own past in contrast to the negative

past of the other peoples (mainly the Germans) are given up in favour of more complex traits of one's own historical self-understanding. In this respect e.g. the collaboration with the German aggressor has got growing attendance. Responsibility to the inhumanity and barbarism of Nazi rule were attributed to a wider range of historical experience than that of Germany. The European dimension of racism and anti-Semitism is systematically taken into account. A higher degree of ambivalence is realized by the insight of the German neighbours into their own involvement in the inhumane ideology and activities culminating in the Holocaust; thus the innocence of one's own people is being blurred.

This growing complexity or heterogeneity and ambivalence seems to becom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emerging European historical culture which includes and synthesizes the various national and regional historical memories of the European countries and peoples. The distinction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has not been given up, but it is gaining more complexity. Perpetrators can be victims at the same time and vice versa.

This tendency is of great importance for overcoming the traditional powerful ethnocentrism in historical culture, which is still prevailing all over the world. The described ambivalence may dissolve the strict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which always occurs when drawing a historical line of definition concerning the image of oneself in difference to the otherness of the others. (Even the widespread moralistic attitude of dividing the world of historical memory into that of perpetrators and victims - not to speak of the profiteers and bystanders - is based on the logic of ethnocentrism and its unbalanced distribution of values between the positive self and the less positive or negative otherness of the others.) Allowing the shadow of one's own history a place in the cultural processes of identity building opens the door to a new approach to the otherness of the others beyond the clear mutual exclusion of good and evil. Ambivalence makes it possible to

keep up the peculiarity of one's own historical identity and to recognize the peculiarity of the others on the same normative level of being human. The ethnocentric division of peoples, nations, and cultures is overcome by sharing the values of humaneness as well as the potential of inhumanity in every human being.

If this basic humanism is achieved in the fundamentals of historical culture a further step can be done to overcome the lasting compulsion to repeat the struggles and conflicts of the past by the way they are commemorated. This step is the step of forgiving. Forgiving introduces a new power of humanism into the mental activities of forming historical identity.

There are not many examples for this humanizing historical memory. But nevertheless, they exist. Let me mention only three: the first is the remarkable announcement of Eva Kor at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Auschwitz; here she announced her manifesto of forgiving: "Fifty years after liberation from Auschwitz, I Eva Mozes Kor, in my name only, give this amnesty because it is time to go on; it is time to heal our souls; it is time to forgive; but never forge [...]"¹⁰⁾

This act of forgiving was an act of liberation for herself: "A burden of pain was lifted from my shoulders. I was no longer a victim of Auschwitz. I was no longer a prisoner of my tragic past. I was finally free."¹¹⁾

My second example is the truth-and-reconciliation-commission in South Africa. The black female author Pumla Gbodo-Madikizela has published a book about her experience and eng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work of this commission.¹²⁾ This book is a speaking example for

the idea and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forgiveness as an element of historical culture.

The third example is a Korean one. I think of a dialogue between a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im Dae Jung,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fter the latter had delivered a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26 September 1997. When he was asked for his relation to those politicia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Kwangju massacre he said: "To be able to reconcile is the most desirable situation. However, even if the offenders do not apologize, the victim can still forgive."¹³⁾

With this last example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steps from concealment to moralization and from moralization to historization can and should be pursued into the direction of this growth of humaneness in historical culture. We should carry our necessary moral judgement of past events into a mental process of mourning.¹⁴⁾ By this process the loss of humanity in the past can create a chance of gaining it back in a new way. The chain of atrocities usually binds the past to the present by the compulsive power of repetition. This chain can be broken in coming to terms with the burdening past. Forgiving can liberate us from the burden of the past.

Clarmont: David Philip Publishers 2003

13) Han, S.-J. (ed.) 1998. Looking out from the East towards the world: Kim Dae Jung's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bate on Human Rights. Seoul, 54-58 ; republished in: Diawara, Mamadou; Lategan, Bernard; Rüsen, Jörn (Eds): Memory in Africa. Forthcoming New York: Berghahn Books 2009

14) Cf. Rüsen, Jörn: Trauma and Mourning in Historical Thinking, i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istory and Archeology, vol. 1, no. 1, Summer 2004, pp.10-12

10) <http://users.abcs.com/candles/amnesty.htm>

11) <http://www.departments.bucknell.edu/pr/releases/Archives%202002/fall%20semester/kor%20talk%2010-28-02.htm>

12) Gobodo-Madikizela, Pumla: A human being died that night. A story of forgiveness.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 임원 명단

제3기: 2009.2~현재

회 장 :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운영위원장 :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집위원장 : 한정숙(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총무/ 간사 : 전갑생(제노사이드연구회)
감 사 : 김주완(경남도민일보)

■ 운영위원(가나다 순)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김일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지역조사과장)
박찬승(한양대 사학과) 윤충로(성공회대 연구교수)
이임하(한성대 연구교수)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용욱(서울대 사학과 교수) 정호기(성공회대 연구교수)

• 지역별 운영위원

김귀옥(한성대 사회학과) 김양식(충북학연구소)
도진순(창원대 사학과) 염미경(제주대 사회교육과)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전현수(경북대 사학과)
정병준(이화여대 사학과) 최정기(전남대 사회학과)

■ 편집위원(가나다 순)

편집간사 : 김학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편집위원 : 강성현(서울산업대 강사), 김일수, 최호근,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지역별 편집위원 : 조시현(건국대 법학과), 최정기(전남대 사회학과)
- 뉴스레터 편집간사 : 이광욱(동아대 사학과 박사과정)